■ 실속 재테크 '만능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높아 일석 증여 수단 이조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판매 1주일만에 가입자수가 3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6일 판매를 시작한 이 통장은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고 민간·공공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가입계좌수가 벌써 20여만좌에 육박하고 있다.

◇'모든 주택 청약가능+증여 수단+고금리'가 인기 비결=만능청약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유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 청약통장은 미성년자는 가입이 아예 불가능했고 통장별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따라 일정 규모이상의 청약에 제한을 두고 있다.

만능청약통장은 또 20세 미만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해 증여수단으로 가입하는 사례도 많다. 두 아들 명의로 만능청약통장에 가입했다는 주부 김모씨(45)는 "애들이 나이 스물을 넘기면 이 통장을 활용해 집을 사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천5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증여수단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다.

현재의 저금리 추세를 감안하면 금리도 매력적이다. 2년 이상 유지하면 4.5%의 금리가 제공된다. 일반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재테크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 1순위자는 갈아타기 금물=새 통장으로 갈아탈 경우 기존 가입기간과 가입액은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갈아타기에 신중해야 한다.

새 통장에 가입한 뒤 1순위가 되려면 다시 2년을 기다려야만 한다. 청약통장은 일정액을 납부한 지 2년이 지나면 1순위, 1~2년이면 2순위, 6개월 이상이면 3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주택 청약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장기라면 기존 통장을 바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3년이면 가점이 4점에 불과하지만 6~7년이면 8점, 15년 이상이면 17점을 받을 수 있다. 1년마다 1점씩 더 받게 돼 있다.

따라서 기존 청약통장이 1순위인 데다 장기간 보유했거나 내집마련이 급한 경우라면 굳이 새로 만능청약통장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만능청약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2년 뒤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질 경우 청약 경쟁률이 높아져 희소가치가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리은행 호남영업본부 임병화 부부장은 "청약 경쟁률이 거의 없는 광주·전남지역에서도 향후 수도권을 겨냥해 가입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하지만 당장의 인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청약통장별 가입조건

구분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대상	연령·자격제한 없음	무주택 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20세 이상 개인
저축금액	월 2만~50만원	월 2만~10만원	200만~1,500만원	월 5만~50만원
취급기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	전국 16개 은행	전국 16개 은행	전국 16개 은행
대상주택	모든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기관 건설 주택 등	모든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신생아용 전용워시 써보세요 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존슨즈베이비 신생아용 전용워시 탑투토 포밍워시 출시 기념 목욕 강의'에서 출산교육 전문가인 조영미씨〈가운데〉가 신생아 부모들을 상대로 올바른 목욕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 인천~뉴욕 매일 운항

28일부터 주 7회로 증편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8일부터 인천~뉴욕 노선을 주 5회 운항에서 주 7회 매일 운항으로 증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시행 및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전 미주 노선의 경쟁력과 시장 점유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이번 증편에 프리미엄급 코쿤시트와 전 좌석 개인별 AVOD(승객이 영화나 음악을 골라 감상하는 설비)등 첨단 기내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도입한 B747-400 기종(257석)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행기 좌석 공급도 왕복 기준으로 1주에 1천28석이 늘어나게 됐다. /장필수기자 bungy@

도소매업이 철강산업 경기부양보다

고용창출 효과 3배 크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시 고용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도소매업으로, 철강산업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부의 재정지출을 특정분야에 집중 배분할 경우 건설분야보다는 교육·보건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소득 및 고용창출 면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는 산업연구원(KIET)이 2005년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재정 지출시 효과를 분석해 12일 내놓은 '경기부양책의 부문별 배분구조와 소득 및 고용창출효과'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개별 산업부문에 1조원의 투입을 가정하면 도·소매업은 총고용을 4만6천200명 가량 늘려 가장 많은 고용창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3만800명)을 크게 앞섰고 철강(1만6천300명)의 3배에 가까웠다.

도소매 외에 사회·기타서비스(3만9천700명), 교육·보건(3만5천100명), 공공행정·국방(3만300명)도 고용효과가 컸다.

이에 비해 소득창출 효과를 보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1억원의 정부 지출 증가시 1억6천800만원의 소득창출 효과를 가져 가장 파급효과가 컸고 교육·보건(1억6천200만원)이 그 다음이었다.

도소매와 공공행정·국방도 1억6천100만원의 높은 소득창출 효과를 보였으나 전기·전자(1억원), 조선(1억900만원) 등의 기간산업은 효과가 낮았다. /연합뉴스

진로 참이슬 마케팅 '눈길잡네'

전남서 열리는 3대 체전 홍보문구 삽입 전국 공급

㈜진로(대표 윤종웅)가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홍보에 적극 나섰다.

진로는 "'참이슬'의 보조상표에 올해 전남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3대 체육대회 홍보문구를 삽입, 지난 1일부터 전국에 공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올해 전남에서는 이날 개막한 장애학생체육대회를 비롯, 오는 30일부터 전국소년체전이 열리고 9월에는 장애인체전이 개최된다.

진로가 체육대회를 알리는 상표를 부착한 '참이슬'은 모두 3천만병으로 30개들이 상자 100만개가 전국에 유통된다.

진로는 지난달에 담양군의 '대나무축제' 홍보문구를 자사상품에 표기하기도 했으며 이에 앞서 '한잔의 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 63곳에 쌀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지역 밀착형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진로 광주지점 관계자는 "전국 유통망을 가진 진로가 광주·전남 지역 주요 행사 홍보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